

# 中國 敎育 패러다임의 변화\*

— 科學制度를 중심으로 —

金 德 三\*\*

## < 목 차 >

1. 들어가는 말
2. 敎育 패러다임 變化의 背景
  - (1) 敎育 內的 背景
  - (2) 敎育 外的 背景
3. 새로운 敎育 패러다임의 影響
  - (1) 敎育 內的 影響
  - (2) 敎育 外的 影響
4. 나오는 말

## 1. 들어가는 말

敎育은 시대적 요구에 반응하여 변화하기도 하지만, 반면 시대의 변화를 이끌어 가기도 한다. 어떤 측면에서 敎育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敎育이 시대적 변화 혹은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지 못한 상황에서 기인할 것이다. 이러한 것이 과도하게 축적된 경우를 연구자는 敎育 패러다임(Paradigm)의 변화를 요구하는 상황으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과학 분야에서 패러다임을 처음 제시한 토머스 쿤(Thomas Kuhn)의 이론을 敎育이라는 틀에 빗대어 설명해도 어느 정도 상통

\* 이 논문은 2012학년도 대진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대진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한다고 생각한다. 교육사에도 당시 교육계에서 전반적으로 인정하는 모범적인 틀이 있는데, 이것이 그 시대의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패러다임에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가 일어나는데, 큰 이를 정상과학(normal science)이라고 했다. 교육 분야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다양한 시도 속에서 어느 정도 일정한 성과가 누적되면 기존의 패러다임은 조금씩 부정되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자리를 대체하지만, 이 역시 영원히 지속될 수 없고, 생성, 발전, 쇠퇴, 대체의 과정을 거친다. 물론, 시대에 뒤진 이론들이 폐기되어 버렸다는 이유로 해서 원칙적으로 비과학적은 아닌 것처럼<sup>1)</sup> 과거의 교육 패러다임도 폐기되어 버렸다고 해서 비교육적인 것은 아니다.<sup>2)</sup> 科擧制度의 원형은 지금도 존재하며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교육열을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위장된 학벌열, 간판열인지도 깨닫지 못한 채 우리를 오직 시험과 시험의 결과만이 존재하는 상황으로 바꿔 버린 것처럼, 시대에 뒤진 패러다임이라도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과거, 교육 패러다임은 시대적 변화에 의해서 변화했고, 이러한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는 사회의 변화를 이끌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 교육사는 인류 교육사, 특히 동아시아 교육사에서 매우 의미 있는 변화를 제공했는데, 연구자

1) 토마스 S. 쿤 저·김명자 역, 《과학혁명의 구조》(서울: 동아출판, 1996), 21쪽. 과학혁명에서는 패러다임과 패러다임 사이에는 질적인 단절이 있다. 그러므로 패러다임 사이의 우열을 말하기는 힘들다. 또한 어떤 면에서 현재 진행되는 교실 안에서의 교육은 현재의 패러다임을 익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모른다.

2) 과학이 기술을 넘어서는 것은 기존의 관점을 뛰어 넘는 혁명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을 그대로 교육에 적용시키는 것은 다소 무리가 따른다. 그러나 쿤의 패러다임을 응용하여, 교육에서 교육 방법의 변화, 교육 목표의 변화와 같은 혁명적 변화는 어떤 논리에 의해 진행되는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앞으로 더 밝혀야 할 문제라 생각한다. 우리는 어떤 틀, 場, 관점, 패러다임, 에피스테메에 있을 때, 다른 것을 의식하기 힘들다. 이러한 것이 바뀌고 새로운 것에 들어갔을 때야 비로소 이전의 것이 어떠했는지 알 수 있다. 이는 내가 살고 있는 곳을 떠나 다른 곳에서 생활해 볼 때 내가 살고 있는 곳을 잘 이해하는 것과 비슷하다. 토머스 길로비치가 명명한 편향확증(Confirmation-Bias)도 이와 같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라는 것은 객관적이거나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게임의 결과일 수 있다. 왜냐하면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믿고, 그렇지 않은 것은 믿으려 하지 않고, 더 나아가 자신의 믿음을 공고히 하기 위해 유리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구해서 확고하게 만들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동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결국 패러다임이라는 이름으로 살피는 연구는 데카르트의 '나'라는 것을 넘어, 사회철학적이고 역사철학적인 것을 필요로 한다.

는 이를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측면으로 보았다. 예를 들어, 孔子의 教育, 科擧制度, 西洋教育의 전파 등이 그러한 경우다. 이 가운데에서도 특히, 科擧制度는 중국 교육뿐만 아니라 인류의 교육사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혁명적 사건이었다.

科擧制度는 인재 선발의 방법을 투명화하고 객관화시켜 기존의 교육 목표와 틀을 변화시켰다. 뿐만 아니라, 科擧制度를 통하여 계층 간의 이동, 중앙 권력의 집중, 정치적 안정, 士人の 권력화, 儒學의 獨尊, 학문의 확대 등 다양한 사회 문제와 현상을 불러 일으켰다. 이처럼 科擧制度는 중국 전통 사회를 유지하고 지탱하던 중요한 요소로서 1300여 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존재하였다. 비록 科擧制度의 역사적 출발은 隋代에 위치해 있지만, 科擧制度가 정착되고 사회문화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패러다임의 변화를 일군 것은 隋代 이후의 王朝를 거치는 오랜 시간의 변화와 적응 속에서 가능했다.

본 연구에서는 科擧制度를 중심으로 중국에서 일어난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를 알아볼 것이다. 교육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데 있어 어떠한 조건이 조성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가 사회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 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科擧制度와 관련하여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다양한 이견이 존재한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시각에서 바라보려 한다.<sup>3)</sup> 그것은 본 연구의 목표가 科擧制度 연구 자체가 아니라, 科擧制度를 통한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를 고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科擧制度는 시험 성적에 따라 관리를 선발하는 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科擧'라는 말은 '科', 즉 科目에 따라, '擧', 사람을 뽑는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科擧制度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첫째, 선발 기준이 마련되어야 했고, 둘째, 선발된 인재를 활용할 곳이 있어야 했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에 맞는 분위기가 사회전반에 조성되어야 했다. 물론 다른 조건과 배경도 이러한 두 가지 전제조건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첫째의 경우를 교육 내적 배경으로, 둘째

3) 오랜 기간 동안 영향을 미친 科擧制度는 분명 각 시기별로 다양한 특징과 의의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科擧制度의 탄생과 정착 시기를 중심으로 알아보려 한다.

의 경우를 교육 외적 배경으로 보아 접근하였다. 그리고 科擧制度의 영향도 이러한 배경에 맞춰 교육 내적 영향과 교육 외적 영향으로 구분하여 科擧制度를 중심으로 한 중국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를 알아보았다.

## 2. 教育 패러다임 變化의 背景

### (1) 教育 內的 背景

시험을 통해 관리를 선발한 것은 그 역사가 물론 오래되었지만, 관리 선발의 보조적인 역할에 준하였다. 역사적으로는 春秋戰國時代에 세습 관료제가 점차 무너지면서 이를 대체할 다양한 관리 선발 방법이 시행되었다. 그러한 가운데, 시험을 이용한 선발 방식이 일부 실행되기도 했지만 확실한 제도로 정착하지는 못했다.<sup>4)</sup> 이후 漢代부터 관리 채용시에 보다 체계적으로 시험을 이용하였다. 특히, 察擧制度에서 이러한 것이 엿보이는데, 察擧制度에서도 薦擧가 중요했고, 시험은 보조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래서 학과시험으로 관리를 선발하다가 隋煬帝에 이르러 進士科를 설치하면서 탄생한 것이 科擧制度의 본격적인 출발이다. 科擧制度를 중심으로 한 교육 패러다임 변화의 교육 내적 배경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교육 패러다임의 문제점이 컸다. 예를 들어 科擧制度 이전에 시행되었던 推薦 制度는 정치적으로 권력이 쇠퇴한 시점에 이르러서는 문제와 비리의 온상이 되었다. 察擧는 君國 관리들의 의지에 영향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발이 어렵고, 魏晉南北朝 시기에 실행하였던 九品中正制는 관리 선발의 기준을 德行에 두었기에 주관적이었다. 게다가 문벌세족의 통제 하에 있었기 때문에 문벌세족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 벼슬길에 오르는 데 어려움이 있

4) 이경자, <중국의 대학입시제도>, 《안암교육학회》(제11권 제1호, 2005. 4월), 79~80쪽.

었다. 그래서 隋文帝는 즉위한 후 九品中正制를 폐지하였다. 그리고 漢代 察舉 制度의 합리적 요소를 수용하면서, 주·군의 추천이 필요 없고, 출신가문을 따지지 않는 인재 선발 방식인 科舉制度을 시작하였다.

둘째, 새로운 패러다임을 실천하기 위한 환경이 이미 갖춰졌다. 즉, 시험을 치르기 위해 통일된 표준 교육내용과 체계적인 교육방법이 세워졌어야 했다. 과거라는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시험 볼 내용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갖추기 위해서는 학문을 전파하는 개인이나 기관이 있어야 하고 여기에서 행하는 교육이 널리 전파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주로 春秋時代의 孔子를 중심으로 한 儒家의 기여가 컸다. 특히, 孔子의 “有教無類”의<sup>5)</sup> 사상에 입각하여 학문이 사회 각 계층에 두루 퍼지기 시작하였고, “學而優則仕”라는<sup>6)</sup> 사상에 입각하여 배우고 우수한 자는 관직에 오를 수 있다고 했지만, 결국 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배워야 하고, 학업 재능이 우수하지 못한 자는 관리가 될 수 없다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sup>7)</sup> 즉, 신분보다는 능력에 의해 인재를 등용해야 한다는 사회적 자각이 일어났고, 이러한 것이 科舉制度의 사상적 토대를 마련케 했다. 이러한 상황은 국가의 이익을 위해 인재유치 경쟁을 벌였던 戰國시기를 지나면서, 百家爭鳴의 영향으로 더욱 확대되었다. 春秋와 戰國시기에는 천자의 권위가 떨어지고, 봉건 영주들은 그 틈을 노려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능력 있는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 확대되었다. 반면에 이와는 대조적으로 많은 세습 귀족들이 몰락하면서 이들이 가지고 있던 교양, 지식, 문화가 사회 하층민을 비롯하여 사회전반에 퍼져 나갔다.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의 지식 전파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었다. 漢代에 이르러서는 儒學을 정치철학으로 삼으면서 儒學을 중심으로 한 인문학적 소양이 중시되었고, 儒學과 관련된 학문이 더욱 발전하였다. 예를 들어, 漢文帝는 公孫弘의 제안에 의거하여 儒學을 중심으로 하는 五經博士를 두고, 博士弟子를 선발하면서, 다른 諸子百家의 학문을

5) 《論語·衛靈公》

6) 《論語·子張》

7) 李兵·柳海峰, 《中國科舉史》(北京: 東方出版中心, 2006), 5쪽.

연구하는 것을 억제하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隋代에 이르러서는 교육 사업을 더욱 중시하였다. 예를 들어, 학교를 건립하고, 사람들에게 經을 배우고 禮를 익히게 하였다. 또한 교육사업의 관리와 지도를 강화하기 위해 중앙에 國子寺를 설치하고, 祭酒 한 명을 두어 교육 사업을 관리하게 하였다. 그 밑에는 관에 속하는 主簿와 錄事 각 한 명씩을 두었다. 國子寺가 國子學, 太學, 四門學, 書學과 算學을 관리하게 하고, 각각 博士, 助教, 學生 등을 두었다.<sup>8)</sup> 이처럼 隋代 초기 통치자는 정치를 혁신하고 풍속을 바꾸기 위해 특별히 학교의 건립과 발전에 주력했고, 이를 위해 중앙에 國子寺를 세우고, 祭酒를 두어 전문적으로 전국의 학교교육사업을 관리하도록 했다. 隋代에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교육행정부문을 전문적으로 설립하고 전문적인 교육장관을 두기 시작한 것이다.<sup>9)</sup> 이러한 준비와 배경 속에서 마침내 과거제도가 탄생할 수 있었다.

科擧制度가 시행되기 이전의 교육은 피교육자와 교육내용 모두가 제한적이었다. 그러므로 국가를 구성할 인재를 선발하려 해도 널리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은 무의미했다. 먼저, 교육 내적으로는 학문에 대한 확대와 선발 인력을 채용할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선결 과제였고, 교육 외적으로는 정치철학에 대한 새로운 정립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과거라는 시험이 탄생할 수 있었다.

## (2) 教育 外的 背景

科擧制度 시행 이전에 관직은 귀족계층의 전유물이었다. 또한 전에 시행된 추천식 선발제도 역시 그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일반 서생들은 여기에 참여할 수가 없었고 방식 또한 상당히 주관적이어서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다.

8) 《隋書》卷28 《百官下》“國子寺祭酒, 屬官有主簿錄事. 統國子大學四門書算學, 各置博士助教學生等員”

9) 광제가 저·이경자 역, 《중국의 고대학교》(서울: 원미사, 2004년), 122~123쪽, 이는 중국 교육사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교육을 관리하는 전문적인 국가 행정기구와 관리로서의 의미가 크다. 孫培青, 《中國教育史》(上海: 華東師範大學出版社, 2003), 151~152쪽.

그래서 교육을 받지 못한 일반 서민들은 높은 관직에 접근하기 어려웠다. 科擧制度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정착할 수 있었다. 科擧制度를 중심으로 한 교육 패러다임 변화의 교육 외적 배경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치적 요구가 있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상식처럼 언급해서 진부한 얘기가 되었지만, 科擧制度 탄생의 가장 커다란 교육 외적 배경은 정치적 요구다.<sup>10)</sup> 隋는 魏晉南北朝를 거친 360여 년간의 혼란기를 정리하고 581년에 통일왕조를 건국하였다. 비록, 隋나라가 文帝, 煬帝, 恭帝에 걸쳐 약 38년 밖에 되지 않은 짧은 시기를 집권하며 618년에 막을 내렸지만, 중앙 집권의 기틀을 마련하고, 국가의 영토를 확대했으며, 4800리에 이르는 운하를 개통하는 등 역사에 커다란 족적을 남겼다. 그 가운데 중앙 집권의 기틀을 마련한 것은 科擧制度和 관련하여 의미가 더욱 깊다. 북쪽 지방을 다스렸던 北周 때와 달리 중국 전체를 통치하는 隋나라 때에는 영도와 인력, 또 다양한 민족과 계층에서 새로운 환경에 직면했고, 이를 타계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중앙 집권을 강구해야 했다. 이를 위해, 먼저 隋文帝는 開皇律을 반포하면서 관제를 정비하였는데, 이것은 중앙 집권을 강화하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조정의 관제를 內史省, 門下省, 尙書省으로 나누고 신하의 힘을 분산시키면서 이를 직접 황제가 장악하여 자신의 영향력을 높이려 하였다. 지방의 경우는 郡縣制로 바꾸고, 9품 이상의 지방관은 조정에서 임명하여 중앙의 통제를 강화했다. 게다가 정관의 경우 3년에 한 번씩 이동하도록 했고, 吏部에서 치적을 심사하도록 하여 중앙 집권 체제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것들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새로운 인재, 능력있는 인재, 귀족 권력의 그늘에 가려지지 않은 인재를 선발해야 했다. 그래서 587년에 文帝는 각 州에 명하여 3명씩 인재를 추천하도록 했고, 전국 90개 州에서 올라온 貢士에게 시험을 보게 하여, 이 중에서 관료를 선발했다. 그리고 隋煬帝 大業2년(606년)에 進士科를 설치하여 과거제도의 막을 올렸다.<sup>11)</sup> 결국, 이와 같은 관리 선발제도의 변경에 따른 정치적 요구에 의하

10) 王炳照·徐勇 主編, 《中國科擧制度研究》(河北: 河北人民出版社, 2002), 84~92쪽.

11) 進士科의 설치를 과거의 시작으로 본다. 그런데 進士科가 언제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이에 대해서는 李兵、柳海峰, 앞의 책 61~69쪽을 참고하기 바란다. 본

여 문벌귀족들의 관직독점과 정치세력의 견제를 잠재울 수 있었다.

이상의 정치적 요구는 단순히 중앙의 권력을 강화하는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인재풀을 만들고, 이에 맞는 전문적인 인재를 선발하는 시스템을 요구하게 하였다. 隋王朝는 後漢이 멸망한 이래 360여 년 만에 중국을 다시 통일하였지만, 隋王朝에 이어 隋煬帝의 이종 사촌인 李淵이 세운 唐王朝 역시 과거와 달리 多民族 통일 대제국을 형성하였다. 다양한 민족과 계층을 통일하고, 새로운 인물을 만들고, 기존의 기득권 세력을 완화시키는 일이 필요했기 여기에 科擧制度가 적합하였다. 과거에는 인맥과 혈연을 중심으로 한 추천으로 관리를 선발하였다. 예를 들어 수나라 초기의 주·군 장관은 모두 전쟁에서 공을 세운 무장들이었다. 이로 인해 지방의 재산과 관리를 武將이 맡게 되자 많은 폐단이 생겼지만 이런 관례를 쉽게 바꿀 수는 없었다. 후에 御使가 된 柳彧이 隋나라 文帝에게 황금은 하사할 수 있어도 관직은 하사할 수 없음을 깨우쳐 주었던 것처럼,<sup>12)</sup> 이러한 방식은 새로운 시대적 변화와 요구를 따르기에 역부족이었다. 그래서 객관적인 선발 기준인 과거제가 탄생할 수 있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황권을 강화시키는 이런 일련의 행정법규는 모두 후대 중앙 집권 왕조에 의해 계승되고 완비되어, 지방권력에 대한 문벌세족의 농단을 효과적으로 차단했다.<sup>13)</sup> 《文獻通考》에서 지적한 것처럼 隋代 이후 “임명된 관원은 모두 조정에서 나왔으며, 주·군에서는 더 이상 초빙하여 벼슬을 주는 일이 없게”되어<sup>14)</sup> 중앙의 권력을 강화하려던 정치적 요구에 부응하고, 새로운 인재풀을 만들면서, 인재 선발 시스템을 새로이 정비하게 되었다.

논문에서는 많은 選舉史나 教育史 저작에서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大業2年으로 하였다(柳海峰等著, 《中國考試發展史》(上海: 華中師範大學出版社, 2002), 44쪽.

12) 《隋書·柳彧傳》

13) 진정 지음·김효민 옮김, 《중국과거문화사》(서울: 동아아시아, 2003년), 77쪽.

14) 《文獻通考》 卷39, <選舉十二>

### 3. 새로운 教育 패러다임의 影響

#### (1) 教育 內的 影響

科擧制度는 긍정적인 측면에서도 후세에 영향을 미쳤지만,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영향도 적지 않았다. 교육 방면에서 科擧制度는 私學의 발전과 교육의 보급을 촉진시켰다. 그러나 官學의 쇠퇴와 유명무실화를 촉진했고, 시험을 중시하고 교육은 경시하는 세대를 낳았으며, 학교를 과거 시험의 보조적 위치로 변질케 하였다. 오직 과거만이 출발점이자 종착점이었다.<sup>15)</sup> 이것은 科擧制度 자체의 문제보다 科擧制度를 운용하고 실행하는 과정 속에서의 문제였다. 그래서 科擧制度와 같은 시험으로 평가하여 선발하는 방식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며 그 맥을 유지하고 있다.<sup>16)</sup>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은 科擧制度가 교육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儒家思想을 핵심적 가치로 자리매김하게 하였다. 물론 科擧를 통해 儒家思想이 중국 사회에 굳건하게 자리 잡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儒家思想을 중심으로 한, 가치 편향적 성향은 결국 科擧制度를 종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과거는 시험을 응시하는 응시생에게 수준 높은 지식과 교양을 요구하였는데, 일반적으로 과거시험은 고전 인문학을 위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결과, 科擧制度는 人文學을 중시하고 自然科學을 경시했고, 文을 중시하고 武를 경시했으며, 經學과 文學이合一된 발전을 지향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가장 잘 구현된 것이 儒家 文化였다.<sup>17)</sup>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儒家의 經學이 科擧 시험의

15) 柳海峰, 《中國科擧文化》(遼寧: 遼寧教育出版社, 2010), 330쪽.

16) 《中國考試發展史》(柳海峰等著, 上海: 華中師範大學出版社, 2002), 《中國考試制度史》(謝青·湯德用 主編, 安徽: 黃山書社, 1995) 등의 考試史 관련 문헌을 보면 科擧制度도 결국 시험을 통한 선발로 보고, 이러한 시험의 역사를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통찰하고 있다. 결국 선발의 방식에 있어서 시험을 통한 방식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요 내용으로 자리 잡았다. 科擧制度가 본격적으로 출발한 隋代의 경우를 보면, 崇佛尊儒의 정책을 펼치면서 佛家도 존중했다. 隋文帝의 경우 武人출신으로서 詩와 書를 그리 좋아하지 않았지만, 통치적인 필요에 의해 儒學의 禮樂教化를 수용하였다.<sup>18)</sup> 이를 이어 唐高祖의 경우도 유교를 숭상하라고 강조하였다.<sup>19)</sup> 唐太宗의 경우도 이러한 뜻을 이었다.<sup>20)</sup> 결국 통치자들의 유교 숭배는 科擧制度를 통하여 유가의 사상이 굳건하게 자리 잡도록 하였다. 유교적 사회이념은 사회적인 불평등을 일단 정당화하고, 동시에 사회적 신분은 개인의 능력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지지하였다. 이러한 이념적인 二重性은 唐代에 경쟁적인 科擧制度가 영속적인 제도가 된 뒤, 특히 明初에 縣·州·府·省 단위로 관학이 설립되고 또한 초보적이지만 전국규모의 장학금 제도가 설립된 뒤로는 더 잘 해결되었다. 사회이동에 대한 科擧制度의 영향은 唐 中期 이후에 더욱 더 분명해졌으며, 지난 천년 동안 점진적으로 유교의 사회이념에 기초를 두었다.<sup>21)</sup> 이처럼 儒教는 科擧制度를 통하여 중국 전통사회의 핵심적 가치가 되었다.

둘째, 학문을 널리 전파하고, 학교 교육을 발전시켰다. 隋代 이전시기에 관리가 되는 방법은 가문의 배경에 있었지 學力의 척도에 있지 않았다. 그러나 科擧制度 시행 후 과거를 준비하기 위한 학문이 중시되었고, 이는 사회 전반에 널리 퍼졌다. 武人출신인 隋文帝의 경우 “세상에 배움을 권하고 禮를 행하도록” 하였다.<sup>22)</sup> 그리고 이러한 것은 唐代에 와서 더욱 발전하였다. 太宗은 신하들과의 논의 끝에 隋代의 명운이 짧았던 것을 교훈 삼아 武를 중시하고, 文을 받드는 偃武修文의 지도이념을 확립하였다.<sup>23)</sup> 이는 崇儒興學으로 이어져 교육방

17) 王炳照·徐勇 主編, 앞의 책, 52쪽, 118~157쪽.

18) 孫培青, 《中國教育史》(上海: 華東師範大學出版社, 2003), 149쪽.

19) 예를 들어, 624년에 釋奠禮를 친히 행하며 “근본에 힘쓰고, 부수적인 것을 정리하며, 유교를 숭상하라 敦本息末 崇尚儒宗”(《唐大詔令集》 卷一〇五 《崇儒》)

20) 예를 들어 “집이 지금 좋아하는 바는 오직 요순의 도와 주공과 孔子의 가르침에 있다. 朕今之所好者 唯在堯舜之道 周孔之教”(《貞觀政要》 卷六 《慎所好》)

21) 何柄棣, 《中國科擧制度的社會史的研究》(서울: 東國大學校出版部, 1988년), 98쪽.

22) 《隋書·高祖紀一》: “天下勸學行禮”

23) 孫培青, 앞의 책, 149쪽.

면에 영향을 미쳤다.<sup>24)</sup> 이러한 기반 위에서 학교가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었다면 과거시험제도는 인재를 선발해서 공급하는 기능을 갖고 있었다. 唐代에 와서는 인재 선발과 인재 양성이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고, 인재에 대한 기준과 요구가 동일해지면서 학교 교육은 장족의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학교는 점점 과거의 예비기구가 되거나 속박을 받게 되었다. 이는 과거시험을 위해서 학교가 존재하는 형국을 만들었고,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나쁜 선례를 남겼다.<sup>25)</sup>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科擧制度를 대체할 만한 것이 특별히 없을 정도로 科擧制度가 중국 전통 사회와 문화에 미친 영향과 효과는 컸고, 특히 학문을 널리 전파하고, 학교 교육을 발전시키는 데 일조 하였다.<sup>26)</sup>

셋째, 지나친 경쟁으로 인하여 학문이 시험위주로 점차 변질되었다. 이에 따라 학문의 다양성과 자유가 억압당하고 동시에 암기하여 외우는 지식으로 변질되었다. 또한 배움을 직업을 얻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삼았다. 어떤 면에서 科擧制度는 고등교육의 발전을 촉진하기도 했지만 진정한 학문의 자유를 억압하기도 했다.<sup>27)</sup> 예를 들어 魏晉南北朝時代에는 九品中正制의 시행과 권문세가의 통치로 황권과 儒學의 정통적 지위가 크게 손상되고 사회가 매우 혼란했으나, 사상과 문화적 측면에 있어서는 모처럼 자유롭고 구속됨이 없는 시대였다. 그래서 철학, 미학, 문학예술 방면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훌륭한 성과를 낳았다.<sup>28)</sup> 비록 과거시험에 明算, 武擧 등이 있어 文으로의 쓸림을 막으며 다양성을 유지하려 했지만, 과거시험의 근본적인 이념과 사회적 풍조가 儒家의 지식을 중시하고, 이러한 것을 암기하여 시험 보는 것에 제한되어 결국 학문의 다양성과 자유가 억압당했다. 게다가 과거제가 영구히 제도화된 이후 3세기 이상 동안 국가는 관료가 되고자 열망하는 자들을 위한 교육시설을 제공하는

24) 《唐書·高祖紀一》

25) 구자역, 《중국교육사》(서울: 책사랑, 1999), 97쪽.

26) 현재의 고시제도도 이런 영향의 잔재이고, 明末 이후에는 유럽에도 소개되었고, 서양 사람들로 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서양에서 중국의 科擧制度를 접한 사람들은 매우 뛰어난 제도라고 평가하고,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사회제도라고 생각했다. Paul F. Cressey, 雷震 역, <科擧制度在中國文化發展上之影響>, 《師大史學月刊》 1卷 1期, 1931.

27) 이경자, 《중국 고등교육사》(과주: 한국학술정보, 2008), 106쪽.

28) 진정, 앞의 책, 73쪽.

것보다는 주로 관료의 충원을 위한 통로로서 과거제를 이용하는 데 관심을 집중하였다.<sup>29)</sup> 이에 전반적인 교육 형태와 목표도 토론과 진리에 대한 탐구보다, 儒學을 중심으로 한 성현의 말씀을 암기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여, 암송하는 소리가 넘쳐 도로에 끊이지 않는 풍광을 연출하였고,<sup>30)</sup> 文辭를 중시하여 형식주의, 교조주의적 형태를 갖게 하였다. 또한 孔子가 말한 “學也 祿在其中矣”라는<sup>31)</sup> 말은 배움을 강조하려는 의도였고 이는 科擧制度의 정착에도 영향을 주었지만, 科擧制度가 지속됨에 따라 祿을 얻기 위해 공부를 하는 것으로 상황이 전도되었다. 이러한 원인 가운데 하나는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쟁 때문이었다. 과거로 관리가 되는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졌다. 예를 들어 인구수의 증가와 관직에 대한 사람들의 높아진 기대는 科擧制度에 부정적인 작용을 하였다.

< 표 1 > 역대왕조의 인구수와 진사합격자수 비교<sup>32)</sup>

朝代	연대	총인구 (만)	進士 합격자(명)	총인구에서 進士 합격자 비교(%)
唐	開元20년(732년)	4543	24(매년)	0.000053
北宋	大觀3년(1109년)	4673	685(3년 1번, 이하동일)	0.000489
南宋	嘉定16년(1223년)	2832	550	0.000647
元	至元27년(1290년)	5883	50(1335년 과거)	0.000028
明	洪武26년(1393년)	6055	100(1394년 과거)	0.000055
清	嘉慶25년(1820년)	26428	246	0.000031

위의 표에서 보듯이 科擧를 통해 신분 상승을 도모했지만, 이 역시 매우 힘든 일이었고, 이러한 사회적 피로감이 科擧制度에 대한 부작용을 발생시켰다. 즉, 인구의 증가와 官職에 대한 높아진 요구는 過當競爭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불러 일으켰고, 이는 學問을 考試合格과 職業獲得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시켰다.

29) 何柄棣, 앞의 책, 190쪽.

30) 《隋書·儒林傳序》

31) 《論語·衛靈公》

32) 王炳照·徐勇 主編, 앞의 책, 62쪽.

## (2) 教育 外的 影響

科擧制度라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은 교육 외적으로 많은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먼저, 신분제로 굳어진 사회를 능력중심의 사회로 전환시켰다. 科擧制度의 특징은 전문적인 자질을 가진 인재를 등용하는 것으로서, 지방의 중정관이 선발해 올리는 九品中正制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 漢나라와 魏晉南北朝시기의 選士는 비록 시험이라는 것이 있었지만 그 시험은 형식에 불과했고 사실은 중정관에 의해 선발해 올리는 察擧가 위주였다. 그러나 隋唐 이후에 시행된 科擧制度는 사회 계층간의 변동을 유도하였다. 즉, 가문의 지위보다는 주로 능력에 기초를 두는 科擧制度의 경쟁적인 성격 때문에 가능하였다.<sup>33)</sup> 그래서 7세기 이후 사회의 계층이동에 있어서 경쟁적인 관료 등용시험제도의 영향은 확연해졌다. 589년에 중국을 재통일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漢族과 非漢族 귀족의 결합체인 唐初 西北部 귀족의 정치적 독점을 점차 파괴시킨 것은 과거제였다. 그리고 宋初에는 잔존한 藩鎮勢力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하여 국가는 문관의 특권과 세력을 크게 양양하고 과거제를 사회정치적 계층이동의 중요한 통로로 만들었다.<sup>34)</sup>

둘째, 科擧制度는 중앙 집권을 강화하고 정치적 안정과 사회 발전을 촉진하였다. 어떤 면에서 정치적 요구에 의해 시행된 科擧制度는 결국 정치적 안정을 이루었다. 즉, 과거제를 통한 관리 선발의 권한은 중앙 정부에 있었으므로 이를 통해 중앙 집권을 강화하여 정치적 안정에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하였다.<sup>35)</sup> 科擧制度가 시행된 隋代에는 왕조의 통치제도로써 三省六部를 근간으로 한 중앙 집권적 관료제도를 수립하고 科擧制度 개혁을 실시하여 관리충원을 보장하였다. 그리고 均田制와 租·庸·調의 경제정책을 수립하여 국가의 재정을 확립하고 또 府兵制를 실시하여 군사적 기초를 공고히 하였으므로 여기에서 隋의 통치제도가 완비되었다. 隋代에 골격이 짜여진 이 중앙 집권적 관료제도는

33) 何柄棣, 앞의 책, 185쪽.

34) 위의 책, 189-190쪽.

35) 이경자, 앞의 책, 105쪽.

당제국의 통치제도로 이행되어 그 완성을 보았으며 이후 청말에 이르기까지 중국 역대 왕조 지배체제의 근간이 되었다.<sup>36)</sup> 특히, 1469년에서 1892년까지 '관리가문에서 출신한 진사의 재분류 관리집안 출신의 사람'을 토대로 나온 조사를 보면, 첫째, 하급관리와 하급관리가 될 수 있는 집안에서 출신한 진사의 23.7%가, 그 자신의 상위 학위의 힘으로, 이미 관료계의 중위권으로 상승하였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와 동시에 진사의 거의 3분의 2가 평민집안이나 현임과 잠재 하급관 집안으로부터 나왔다면, 우리는 官界의 구성이 언제나 유동적인 상태에 있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이다. 둘째, 소수의 고위직 조상을 가진 진사는 신분의 하향과정을 거쳤는데, 이것이 최고 명문 집안들로 하여금 그들의 고귀한 신분을 장기간에 걸쳐 유지시키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 셋째, 관료계는 새로운 가문의 끊임없는 보충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내적인 영속성과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다. 또한 사회적으로 야심만만한 사람들에게 보답해 줌으로써 그리고 관료주의의 안정을 유지시킴으로써 科擧制度는 중요한 정치적·사회적 목적을 다하였다.<sup>37)</sup> 이처럼 科擧制度는 이전과 다른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재 선발을 통해, 특권 귀족계층을 해체하고, 황제의 권위와 중앙 집권을 강화하면서<sup>38)</sup> 군주독재체제의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되었다.

셋째, 科擧制度를 통하여 관리 선발 방식이 진일보 발전했다. 일반적으로 인재의 감별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 선거로서 貢擧, 辟擧, 察擧라고도 한다. 둘째, 考試인데, 선거가 민중의 여론으로써 取捨하지만 考試는 學力을 척도로 삼는다. 역사적으로 보면, 考試는 選舉制度를 개선하여 생겨난 것이다.<sup>39)</sup> 隋代 이전의 선관제도와 비교했을 때, 科擧制度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 번째로 자신이 직접 응시했다. 그 출신, 지위, 재산 여부를 막론하고 모두 스스로 신청하여 시험에 참가할 수

36) 이춘식, 《중국사서설》(서울: 교보문고, 1991), 207쪽.

37) 何柄棣, 앞의 책, 138~139쪽.

38) 물론 科擧制度를 통해 士人의 권력이 강화되고, 이것이 중앙의 권력을 견제하는 힘이 되었다고 보기도 한다.

39) 하원수, <科擧制度의 多重性>, 《사림》(제39호, 2011. 6월), 69쪽.

있었고, 관리의 추천이 필요하지 않았다. 두 번째로 시험이 정기적으로 거행되어 황제가 조령을 내리는 것을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세 번째는 시험이 엄격하여 합격 여부가 완전히 시험장에서의 글의 우열에 의해 결정되었다. 바로 이상의 세 가지 특징이 이후(특히 송대 이후) 중국의 정치적 특징을 결정하였다. 곧 하나의 계층으로서의 세습 귀족의 존재가 배제됨으로써, 전체적 황권이 전체 지주계급과 결합되어 공전의 강화를 이룰 수 있었다.<sup>40)</sup>

넷째, 과거시험을 통해서 관직을 얻을 수 있기에 출신성분이 좋지 않은 사람들도 희망을 갖게 되었다. 세습과 추천으로 굳어진 신분제 사회에서 시험을 통한 관료가 되는 능력중심의 사회로 바뀐 것은 서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 주었다. 그리고 이전과 다른 관료제 사회를 조성하였고 시험을 통해 관직에 나아가야함으로 관리들의 문화 수준이 향상되었다. 물론, 科擧制度가 시행되고 난 뒤에도 여전히 등급 사회였고, 여전히 소수가 통치하는 사회였다.<sup>41)</sup> 그러나 과거가 시행되기 이전과는 달리 공부해서 출세하면 상류사회에 진입할 수 있다는 희망을 서민에게 주었다. 또한 과거에 의해 관직을 얻은 서민들은 곧 강한 집단적 결속을 발전시켰다. 비록 이전과 같은 정치적 독점을 유지할 수는 없었으나 唐宋까지 최고의 사회적 특권을 누렸던 귀족계급과 경쟁하였다.<sup>42)</sup> 이 밖에도 科擧制度는 중국의 文學과 史學을 발전시켰고, 심지어 書藝를 발전시키기까지 하였다.<sup>43)</sup> 나아가 科擧制度를 통하여 중국내 각 민족의 융합과 발전을 비롯하여 이웃 국가와의 문화 교류를 강화시킬 수 있었다.<sup>44)</sup>

40) 何柄棣, 앞의 책, 98쪽.

41) 何懷宏, 《選擧社會及其終結》(北京: 三聯書店, 1998), 140~144쪽.

42) 何柄棣, 앞의 책, 189쪽.

43) 柳海峰, 《中國科擧文化》(遼寧: 遼寧教育出版社, 2010), 327쪽.

44) 王炳照·徐勇 主編, 앞의 책, 55쪽.

## 4. 나오는 말

이상의 연구를 통해 알아본 것처럼, 科擧制度를 중심으로 한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는 중국의 교육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물론 이러한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는 사회적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며 진행되었다. 科擧制度라는 체제를 통한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는 비록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발생한 것이지만, 오랜 기간 동안 사회와 문화 전반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새로운 인물의 영입과 계층 간의 이동, 특정 문벌 귀족의 타파, 중앙 집권의 강화 등을 이룬 科擧制度는 궁극적으로 隋代와 唐代를 거치면서 중국 사회에 안착할 수 있었다.

물론 1905년 科擧制度가 공식적으로 폐지될 당시, 科擧制度는 구시대의 산물이고, 타도의 대상으로 낙인찍혔다. 더 나아가 科擧制度는 서구로부터 유래한 근대의 정치사회적 질서와 대비되는 전통의 가장 중요한 範型들 중의 하나였던 것이고, 근대로 갓 진입한 中國에서 科擧制度는 纏足이나 辮髮처럼 봉건성의 표상으로서 혐오의 대상이었다.<sup>45)</sup>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것은 科擧制度의 영향력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엄밀히 말해서 科擧制度는 중국의 발전을 안정적으로 오랜 기간 이끌었다. 孫文의 생각처럼 科擧制度는 중국이 처음 만든 제도이고, 더 나아가 淸朝 타도 후 새로이 수립해야 할 정치체제의 근간으로 인식되기도 했다. 더 나아가 역대 考試制度가 平民政治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三權分立에 기초한 당시 서양의 民主政治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도 했다.<sup>46)</sup> 그래서 1928년 10월에 공포한 <考試院組織法>에 따라 이듬해 1월 考試院이 정식으로 성립되었다. 이는 정권의 실제적 운용에 필수적인 관료의 충원을 위하여서도 화급히 필요한 조치였다.<sup>47)</sup> 그러므로

45) 하원수, 앞의 책, 55~57쪽.

46) 위의 책, 60쪽.

47) 위의 책, 61쪽.

科擧制度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재 선발의 합리적 제도인 科擧制度의 장점과 이를 응용한 전근대적 정치체제 속에서의 문제점을 구분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즉, 科擧制度의 문제는 科擧制度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科擧制度를 중심으로 한 중국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고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패러다임 변화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새로운 패러다임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기존 패러다임에 문제가 발생하고, 문제 해결 능력이 점차 감소할 때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한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발제도인 科擧制度는 기존의 選拔制度가 가진 한계를 불식시켜,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발에 따른 일반 서민 계층의 만족, 다양한 인재의 등용, 특정 권력층의 권력 집중 방지, 다양한 참여로 인한 반대 세력의 제거, 관직의 전문화, 권력의 중앙 집권화 등을 도모할 수 있었다.

둘째, 새로운 패러다임이 탄생한 것은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 전부터 존재해왔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정착하는 데에도 일정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다. 좋은 법보다는 법을 지키려는 마음이 중요하듯,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이를 운용하는 것에 문제가 생기면 제도자체가 무용지물이 되듯, 운용 역시 중요하고 이를 위해 시간이 필요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관리 선발제도의 연원은 길다. 그러나 관리 선발제도를 정식적으로 출범시킨 科擧制度가 탄생한 시점을 일반적으로는 隋煬帝의 進士科 창설 연도인 607년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唐이 재능을 가진 사람을 관료로 선발하는 과거시험을 영구적으로 제도화함에 따라서 한층 더 폭넓은 진보가 이루어졌다.<sup>48)</sup> 어떤 측면으로 본다면 科擧制度는 唐代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sup>49)</sup> 비록 科擧制度가 隋代에 시작되었지만, 隋代는 科擧制度和 중앙 집권의 기틀을 마련했을 뿐 이를 발전시키고 활성화하여 제대로 이용한 것은 唐代이다.<sup>50)</sup> 이는 마치, 漢代의 발전

48) 何柄棣, 앞의 책, 281쪽.

49) 이경자, 앞의 책, 105쪽.

50) 한국의 과거제도도 唐代의 것을 수용했다. 고려 4대왕인 광종 9년(958년)에 고려에 귀화

이 秦의 토대 위에서 진행되었듯이, 唐代的 발전도 隋代의 기초 위에서 진행되었던 것과 같다. 그렇다고 몇몇 주장들처럼 隋代의 科擧制度 실시에 대하여 의미를 축소하거나 부정할 수는 없다.<sup>51)</sup> 새로운 체계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실행되고, 설령 그 뜻과 의도가 좋더라도 기존의 기득권 세력과 새로운 제도의 부적응에 따른 반발 등으로 일정 정도의 적응기가 필요하다. 특히 과거의 것을 현재의 시각으로 재단해서 볼 때, 보다 충분한 여지를 두고 관찰해야한다. 예를 들어 지식의 양이 두 배로 늘어나는 데 걸린 시간은 1750~1900년 사이에는 150년, 1900~1950년 사이에는 50년, 1950~1960년 사이에는 10년이었고, 2020년이 되면 73일을 주기로 2배씩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의 73일이 1700년대의 73일이 아니다. 이것은 지금의 73일이 600년대의 73일이 아닌 것과 같다. 이러한 변화는 과거의 것을 관찰하는데 주의를 당부하는 중요한 요소이면서, 동시에 패러다임의 변화를 재촉하는 커다란 動因이기도 하다. 지식의 양이 두 배 증가하는데 소요되는 시간만큼, 새로운 패러다임이 출현하고 정착하는데 소요되는 시간도 그 만큼 필요하다. 그러므로 科擧制度가 隋代에 의미 있는 형태로 실행되어 정착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이것은 왕조가 바뀌면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바로 시대적 사회적 적응에 따른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즉, 하나의 패러다임이 사회의 변화를 유도하지만, 이것이 바로 적용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기존의 문제점을 제거하는 데에는 매우 혁신적이고 참신하게 이용되지만, 자체적 문제와 적용시 안착하는 과정 속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새로운 패러다임이 탄생해서 운용되기까지, 권력자나 권력기구의 요청과 집행 의지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그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은 이와 동시에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 孔子의 교육理想도 漢 王朝의

한 雙冀의 제안으로 실시되었고, 1894년 甲午改革 때 폐지되었다.

51) “수 왕조는 인재 선발에 있어 고대 사회에 결코 어떤 창조적 의미를 지닌 典章制度를 제공할 수 없었다. 게다가 隋代의 군신들에게는 뛰어난 인재를 질투하는 단점이 있었던 듯하다.” 혹은 “隋代의 선거시험은 그 자체로 권위를 가지지 못했고, 한두 명의 대신들이 개인의 好惡에 따라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을 만큼 아무런 성문 규정이 없었던 것이다” 진정, 위의 책, 80~81쪽.

강력한 정책에 힘입어 실행되었고, 科擧制度도 隋代와 唐代를 잇는 중앙 집권의 정치적 정책 속에 실행 가능하였다. 그리고 科擧制度가 비록 중앙 권력의 요청에 의해 시도되었다고 하지만,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 환영을 받았고 그것이 힘이 되어 수월하게 안착할 수 있었다.

넷째,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은 교육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킨다. 科擧制度는 元代에 잠시 중단된 것을 제외하고는 1300여 년 동안 700여 명의 壯元과, 11만 명에 이르는 進士, 수백만 명의 舉人, 秀才 등 셀 수 없는 많은 인재를 배출하였다. 이들은 중국 역사에서 걸출한 정치가, 사상가, 문학가, 교육가 등으로 활동하며 중국 역사를 움직였다. 科擧制度는 결과적으로 봉건왕조의 통치 역량을 드높이고, 민간의 反抗 역량을 감소시켰다. 인류사적으로도 인류의 지식양이 급속도로 성장하게 된 원인 가운데 과거라는 시험 제도의 영향도 컸을 것이다. 즉 지식을 근거로 그 사람의 사회적 위치를 결정 하였던 시험제도는 과당 경쟁 속에서 지식의 양을 증가시켰다. 科擧制度의 過當競爭은 동양적 가치관에 부합되어 더욱 과열되었다. 동양적 사고에서 보면, 孝의 마침인 立身揚名은 결국 과거시험에 합격하여 관직을 얻어 훌륭히 잘 수행하는 것으로 실현 가능하니, 어찌 과거시험 공부를 게을리 할 수 있었을까? 공부에 집중하는 것은 의무이자 권리였기에 과거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문제는 많은 양의 지식은 죽은 지식이었고, 공부 방법은 창조적 해결 능력을 매장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시험을 중시하지만 교육은 경시하는 풍조를 유발하게 되었다. 즉, 科擧制度는 공부를 중시하는 근거가 되기도 했지만, 출세의 공부와 수양의 공부를 혼동하게 하는 시작이기도 했다.

다섯째, 패러다임은 생성, 발전, 쇠퇴, 대체의 과정을 거친다. 科擧制度가 기존의 선발제도를 대신하여 새로 자리를 잡았지만, 결국 科擧制度의 직간접적인 영향에 의해 발생한 문제는 또 다른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징표이자 동인이 되었고, 마침내 이것은 1905년을 일기로 科擧制度에 집중된 힘을 빼고, 科擧制度의 핵심인 시험 기능을 새롭게 발전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 그 후, 서양식 교육의 전파 속에 그동안 소외되었던 기타 학문에 대하여 관심

을 갖게 되고, 학교 교육이 발전하고, 경직된 사고를 대신하는 토론과 창의의 교육이 뿌리내리고, 儒學의 사상으로 굳어졌던 사상을 민주와 과학 등 다양한 사상이 넘쳐나게 하는 새로운 변화를 유도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공교육과 사교육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지만 서로의 목표가 다르고, 교육과 현실적 요구 사이의 괴리감이 교육 문제를 풀기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 또 다시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는지 모른다.

#### < 參考文獻 >

- 馬端臨, 《文獻通考》, 杭州: 浙江古籍出版社, 2000.
- 宋敏求, 《唐大詔令集》, 上海: 學林出版社, 1992.
- 楊伯峻, 《論語譯注》, 北京: 中華書局, 2004.
- 楊伯峻, 《孟子譯注》, 北京: 中華書局, 2008.
- 吳兢, 《貞觀政要》, 河南: 中州古籍出版社, 2008.
- 魏徵, 《隋書》, 北京: 中華書局, 1973.
- 곽제가 저·이경자 역, 《중국의 고대학교》, 서울: 원미사, 2004.
- 구자역, 《중국교육사》, 서울: 책사랑, 1999.
- 謝青、湯德用 主編, 《中國考試制度史》, 安徽: 黃山書社, 1995.
- 孫培青, 《中國教育史》, 上海: 華東師範大學出版社, 2003.
- 王炳照、徐勇 主編, 《中國科舉制度研究》, 河北: 河北人民出版社, 2002.
- 柳海峰, 《中國科舉文化》, 遼寧: 遼寧教育出版社, 2010.
- 柳海峰等著, 《中國考試發展史》, 上海: 華中師範大學出版社, 2002.
- 이경자, 《중국 고등교육사》, 파주: 한국학술정보, 2008.
- 李兵·柳海峰, 《中國科舉史》, 北京: 東方出版中心, 2006.
- 이춘식, 《중국사서설》, 서울: 교보문고, 1991.
- 진정 지음·김효민 옮김, 《중국과거문화사》, 서울: 동아시아, 2003.
- 토마스 S. 쿤 저·김명자 역, 《과학혁명의 구조》, 서울: 동아출판, 1996.
- 何柄棣, 《中國科舉制度的社會史的研究》, 서울: 東國大學校出版部, 1988.

何懷宏, 《選舉社會及其終結》, 北京: 三聯書店, 1998.

Paul F. Cressey · 雷震 역, <科舉制度在中國文化發展上之影響>, 《師大史學月刊》1卷1期, 1931.

### < 中文提要 >

本論文的目的是在研究中國教育環境的變化和中國教育模式變化之關係, 特別是科舉制度中心。隋煬帝大業二年(公元606年)建立科舉制分科取士以後, 到清光緒三十一年(公元1905年), 科舉制度延續了1300年。科舉制度是一把鋒利的雙刀劍, 一面是催谷中國古代社會發展, 另一面是造成中國近代的衰滅。

本論文中研究科舉制度建立前的教育內外的背景, 還有科舉制度建立後的教育內外的影響。科舉制度的產生, 不是偶然的。淵源於漢朝, 創始於隋朝, 完備於宋朝。科舉制度對中國傳統社會極大的影響。通過科舉制度, 可以推測。創始教育新模式, 需要過去教育模式中有不能解決的問題, 需要執行者的強烈的意志, 還有教育新模式給很多人的實惠和共同的發展。還有, 新模式的產生, 不是偶然的。需要時間和準備。

關鍵詞: 中國教育、新模式、社會變化、教育模式變化、科舉制度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2. 6. 30.	2012. 7. 31.	2012. 8. 15.	2012. 8. 21.	2012. 8. 31.